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 연구

Research on the Dining-out Behavior of Cheong-Ju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손일락, 김연선
청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Il-Nak Sohn(manner@cju.ac.kr), Yeon-Sun Kim(kysun3113@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청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13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 한다. 둘째,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라 대학생들의 집단을 분류한다. 셋째,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외식행동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레스토랑에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결과 “유행 추구형”, “건강 추구형”, “안전 추구형”, “장식 추구형”, “미각 추구형” 그리고 “웰빙 추구형” 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군집분석 결과는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중심어 : | 식생활라이프스타일 | 외식행동 | 마케팅적 시사점 |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gainst Cheong-Ju undergraduate students. A total of 213 questionnaires was used for the data. The firs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ating habits of food-related lifestyle of the students. The second purpose is to classify them into groups depending on their food-related lifestyle. The third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eating out behavior patters among the groups classified by food-related lifestyle.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ose results, this study would help restaurants have their marketing strategies.

From the factor analysis, 6 factors of "popular-oriented group", "health-oriented group", "safety-oriented group", "decoration-oriented group", "tasted-oriented group" and "wellbeing-oriented group" were extracted. Additionally, "safety type group", "passive food groups" and "high-interest in foods group" were classified from the cluster analysis.

■ keyword : | Food-related Lifestyle | Dining-out Behavior | Marketing Strategies |

I. 서론

국내 외식시장의 규모는 1997년 30조원 수준에 불과

하였다. 2003년에는 약 42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여 7년 만에 40% 증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연 44조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7][28].

접수번호 : #081006-002

접수일자 : 2008년 10월 0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03일

교신저자 : 김연선, e-mail : kysun3113@hanmail.net

특히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가속화, 여가시간의 증대,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편의식품 위주의 식사가 늘어나고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외식행동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10].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추어 마케팅의 이념과 방향도 과거처럼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국한하는 관점이 아니라 점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고객 맞춤형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 판매 형식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27]. 외식의 경우도 비슷한 소득과 연령대라 하더라도 가치관과 생활양식, 규범에 따라 욕구의 내용이 다르고, 소비패턴도 매우 복잡,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25].

이에 본 연구는 청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 한다. 둘째,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라 세분집단을 분류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한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외식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주요한 고객으로 목표하는 레스토랑의 마케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에 의존하기 마련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한 외식 내지는 학교 내 식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식습관이 형성되는 계기를 맞는다[16].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대학생의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초기에 사회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생활의 유형, 양식 또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단순히 생활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중

합적인 의미로서의 행동과 의식을 연합한 생활양식이다[2].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주로 사회학 또는 심리학 등에서 개인과 집단,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해 오다가 1960년대에 들어 미국마케팅학회에 소개되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응용되기 시작했다[26].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와 시장세분화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Lazer[34]다. 그는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상이 반영된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서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Moore[35]는 라이프스타일을 패턴화 되어진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였고, Assael[31]은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의 활동, 취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생활양식이라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축제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3], 한·일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11],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5][9][18][24], 특급 호텔 종사원들의 라이프스타일[8],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13][14][22], 주부와 여성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33],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21], 유럽국가의 라이프스타일 비교[32][37][38], 와인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1][19]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는 『한국인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전국 조사보고서를 1990년에 발간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식생활 실태를 밝혀주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토대로 진행하고자 하며,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외식행동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외식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규모와 유행에 관계없이 국민을 이롭게 하고 또한 국민의 식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기능도 단순히 식음료를 제공하는 차

원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사교의 장소를 제공하며, 문화 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다[17].

전반적으로 외식기업의 성장은 대학생들의 외식의 빈도와 기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미희·김경자[30]는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월평균 외식횟수는 8회 정도였고, 주로 저녁이나 밤에 외식을 많이 했으며, 외식은 가족보다 주로 연인이나 친구와 하고 즐겨먹는 메뉴는 친구와는 한식을 연인과는 양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의 외식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외식소비 행동[15], 한국인의 외식행동[12], 외식이용실태[6],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식행동비교[36], 연령별 외식행동과 한식선호도[17], 대학생의 외식가치와 외식행동[30], 외식소비성향[24], 직장인의 외식행동[4], 식사행동[20][23] 등 주로 외식행동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외식 행동 내지는 레스토랑 선택행동, 메뉴선택행동, 지출행동 등의 행위를 분석하여 레스토랑이나 외식기업에서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메뉴구성과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설문지구성은 크게 3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문항(21문항)과 외식행동에 관한 문항(9문항)은 정효선·윤혜현[24]의 연구인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적용한 5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지를 원용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전공, 학년, 외식비용, 용돈 등으로 측정하였다.

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청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1차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부분적으로 문장을 수정하였고, 응답자와 일대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설문지를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기간과 방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자기 응답형식으로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50부(83.3%)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37부를 제외한 213부(85.26%)의 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서 SPSS/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은 그룹화 하기 위해서 계층적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K-means 군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군집 간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학생	97	45.5	1달 용돈	21-30	55	25.8
	여학생	116	54.5		31-40	35	16.4
연령	18-20	99	46.5		41-50	25	11.7
	21-23	87	40.9	51만원 이상	13	6.1	
	24-26	24	11.3	1달 외식비	5만원이하	40	18.8
26이상	3	1.4	6-10		69	32.4	
학년	1학년	105	49.3	11-15	54	25.4	
	2학년	48	22.5	16-20	28	13.1	
	3학년	40	18.8	21-25	15	7.0	
	4학년	20	9.4	26만원 이상	7	3.3	
전공	인문사회	146	68.5	거주 형태	자취	50	23.5
	자연	33	15.5		하숙	30	14.1
	예체능	34	16.0		가족사	26	12.2

	10만원 이하	14	6.6	부모님과 동거	106	49.8
	11-20	71	33.3		기타	1

본 자료에 대한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학생은 116명(54.5%)으로, 남학생 97명(45.5%)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는 모집단이 대학생인 관계로 20대 초반(23세 이하)이 186명(87.4%)으로 주를 이루었다[표 1].

2. 요인분석

표 2.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분산 비율	아이겐값	크론바 알파
유행 추구형	식품구매	.792	21.863	4.154	.746
	음식유행	.785			
	신 음식 추구	.751			
건강 추구형	음식시식	.486	11.486	2.182	.689
	영양가 고려	.765			
	음식을 가림	.740			
	건강식품 선호	.632			
안전 추구형	인스턴트 혐오	.540	9.732	1.849	.723
	성분 확인	.914			
	첨가물 확인	.877			
장식 추구형	유효기간 확인	.560	7.352	1.397	.758
	상차림조화	.879			
미각 추구형	식기/주방기구 선호	.771	6.595	1.253	.612
	식생활에 투자	.719			
	맛 차이	.655			
웰빙 추구형	맛 집 선호	.621	5.719	1.087	.603
	비만 고려한 식생활	.735			
	분위기 중시	.560			
	맛 우선	.510			

총 분산설명력 62.747
KMO .71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148.535(p<.000)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21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2개의 요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고, 총 19개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 직각회전방식에 의한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을 0.4이상으로 지정하고, 공통성(communality)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6개의 축약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유행 추구형”, “건강 추구형”,

“안전 추구형”, “장식 추구형”, “미각 추구형” 그리고 “웰빙 추구형” 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산 설명력은 62.747%로 나타났다. 이는 정효선·윤혜현[24]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성향에 관한 연구의 “건강 추구형”, “미각 추구형”, “유행 추구형”, “안전성 추구형”, “분위기 추구형”이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요인 1개가 추가되었으며, 요인명 부여에서 차이가 있었다.

3. 군집분석

도출된 6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Hierarchical cluster method)을 수행한 후 K-means 군집방법을 통하여 3개의 유효군집수를 확정하였다[표 3].

표 3. 선택속성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요인/군집	군집 1 (n=55)	군집 2 (n=79)	군집 3 (n=79)	F-value
유행 추구형	3.56 ^a (.605 ^b) H ^c	2.98(.635) M	3.74(.612) H	31.815***
건강 추구형	2.62(.568) M	2.35(.616) L	2.95(.606) H	19.603***
안전 추구형	3.88(.605) VH	2.53(.568) M	3.10(.739) H	71.483***
장식 추구형	2.20(.613) VL	2.08(.620) VL	3.55(.596) H	136.045***
미각 추구형	3.39(.638) H	2.95(.648) M	3.58(.761) H	17.062***
웰빙 추구형	3.48(.516) H	2.97(.647) M	3.46(.548) H	18.485***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주: ***p<.001

a: 평균값

b: 표준편차

c: 유의수준 5%에서 단칸사후검정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 VH(Very High) > H(High) > M(Medium) > L(Low) > VL(Very Low)

그 결과 군집 1은 55명으로 전체 6개요인 중 안전추구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안전 추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79명으로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값이 낮게 나왔으며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어 ‘소극적 식생활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6개 요인 모두에 대해서 평균값이 높게 측

정되어 '식생활 고관심 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건강 추구형 요인이 가장 낮은 평균점을 나타냈다. 반면에 유행 추구형 요인과 웰빙 추구형 요인은 전반적으로 평균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젊은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것으로, 건강보다는 유행과 시대흐름인 웰빙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군집과 인구통계학적특성과의 교차분석

대학생들의 식생활군집별 특징은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월등히 높았으며, 소극적 식생활 집단에는 반대로 남학생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외식 및 식생활에 관심도가 높음을 시사하는데, 이 점은 레스토랑 측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한 달 평균 외식비지출은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비교적 높은 금액인 16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23명(10.8%)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용돈의 규모도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비교적 높은 금액인 31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33명(15.5%)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표 4.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F-value
성별	남학생	23(10.8%)	43(20.2%)	31(14.6%)	4.089*
	여학생	32(15.0%)	36(17.0%)	48(22.5%)	
연령	18-20	24(11.3%)	41(19.2%)	34(16%)	17.634
	21-23	25(11.8%)	27(12.6%)	35(16.5%)	
	24-26	5(2.3%)	9(4.3%)	24(11.3%)	
	27이상	1(0.5%)	2(0.9%)	0	
	1학년	26(12.2%)	44(20.7%)	35(16.4%)	
학년	2학년	12(5.6%)	18(8.5%)	18(8.5%)	7.796**
	3학년	9(4.2%)	10(4.7%)	21(9.9%)	
	4학년	8(3.8%)	7(3.3%)	5(2.3%)	
	인문사회계열	41(19.2%)	52(24.4%)	53(24.9%)	
자연계열	9(4.2%)	12(5.6%)	12(5.6%)		
예체능계열	5(2.3%)	15(7.0%)	14(6.6%)		
용돈	10만원 이하	4(1.9%)	6(2.8%)	4(1.9%)	6.246

	11-20	20(9.4%)	27(12.7%)	24(11.3%)	
	21-30	14(6.6%)	23(10.8%)	18(8.5%)	
	31-40	10(4.7%)	12(5.6%)	13(6.1%)	
	41-50	5(2.3%)	8(3.8%)	12(5.6%)	
	51만원 이상	2(0.9%)	3(1.4%)	8(3.8%)	
외식비 지출	5만원 이하	16(7.5%)	13(6.1%)	11(5.2%)	13.986
	6-10	21(9.9%)	26(12.2%)	22(10.3%)	
	11-15	7(3.3%)	24(11.3%)	23(10.8%)	
	16-20	7(3.3%)	9(4.2%)	12(5.6%)	
	21-25	4(1.9%)	4(1.9%)	7(3.3%)	
	26만원 이상	0	3(1.4%)	4(1.9%)	
거주형태	자취	10(4.7%)	17(8.0%)	23(10.8%)	8.148
	하숙	7(3.3%)	15(7.0%)	8(3.8%)	
	기숙사	9(4.2%)	8(3.8%)	9(4.2%)	
	부모와 동거	28(13.1%)	39(18.3%)	39(18.3%)	
	기타	1(0.5%)	0	0	

주: *p<.05, **p<.01, 숫자=빈도, ()=구성비 %

5. 군집과 외식행동 간의 교차분석

대학생들의 외식행동 시 주요한 목적은 [표 5]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경우는 외식 목적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다양한 음식경험을 하기 위해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가 8.0%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식생활집단의 경우는 외식의 목적에 친구/동료와의 모임이라고 답한 학생이 26명(12.2%)으로 가장 높았다.

표 5. 군집별 외식목적

외식목적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F-value
단순한 식사	12(5.6%)	24(11.3%)	18(8.5%)	26.698***
가족과 함께	7(3.3%)	21(9.9%)	6(2.8%)	
친구/동료모임	26(12.2%)	26(12.2%)	31(14.6%)	
다양한 음식경험	3(1.4%)	2(0.9%)	17(8.0%)	
특별한날의 기념	6(2.8%)	6(2.8%)	6(2.8%)	
가정내 식사 불가	1(0.5%)	0	1(0.5%)	

주: ***p<.001

대학생들의 1회 외식비용은 2만원 미만 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175명(82.1%)정도를 차지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소극적 식생활 집단의 학생 중에 3만 원 이상 이라고 답한 학생의 빈도(13명, 6.1%)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표 6].

표 6. 군집별 1회 외식비용

외식비용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F-value
1만원미만	23(10.8%)	32(15.0%)	26(38.0%)	12.648*
1-2만원	24(11.3%)	30(14.1%)	40(18.8%)	
2-3만원	5(2.3%)	4(1.9%)	8(3.8%)	
3-4만원	0	3(1.4%)	0	
4-5만원	1(5%)	6(2.8%)	4(1.9%)	
5만원이상	2(9%)	4(1.9%)	1(5%)	

주: *p<0.05

대학생들의 군집 간 선호메뉴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중식보다는 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패스트푸드메뉴는 1명의 학생만 답하였다. 이는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응답결과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80명(37.6%)으로 역시 높았으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한식의 장점을 살린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표 7].

표 7. 군집별 선호메뉴

선호 메뉴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F-value
한식	21(9.9%)	31(14.6%)	28(13.1%)	10.998
이탈리안	12(5.6%)	11(5.2%)	17(8.0%)	
중식	0	1(5%)	2(9%)	
일식	2(9%)	4(1.9%)	5(2.3%)	
분식	7(3.3%)	6(2.8%)	4(1.9%)	
패스트 푸드	0	1(5%)	0	
육류	11(5.2%)	20(9.4%)	19(8.9%)	
부패	1(5%)	3(1.4%)	4(1.9%)	
기타	1(5%)	2(9%)	0	

군집별 외식횟수는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경우 월 16회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28명(13.2%)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극적 식생활 집단의 경우는 월 평균 1-5회의 경우가 40명(18.8%)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8].

표 8. 군집별 외식횟수

외식횟수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F-value
1-5	20(9.4%)	40(18.8%)	17(8.0%)	26.645***
6-10	18(8.5%)	11(5.2%)	21(9.9%)	
11-15	6(2.8%)	13(6.1%)	15(7.0%)	
16-20	4(1.9%)	11(5.2%)	18(8.5%)	
21-25	3(1.4%)	2(9%)	2(9%)	
26-30	1(5%)	1(5%)	4(1.9%)	
31회 이상	3(1.4%)	1(5%)	4(1.9%)	

주: ***p<.001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군집별 특징과 학생들의 외식활동 시의 군집별 선호도와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9].

표 9.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군집별 특성

집 단	특 징
안전 추구형 집단	안전추구요인에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식품 및 음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라 볼 수 있다. 중식 메뉴와 패스트푸드 메뉴에 대한 선호도는 전무하고 분식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안전추구형집단에 분식선호가 높은 점은 특이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라이프스타일 6개 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외식의 목적에 단순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학생이 24명(11.3%)으로 가장 높았다. 선호메뉴는 육류가 높았으며, 1회 평균 외식비 지출이 3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의 빈도(13명, 6.1%)가 높았다. 또한 월 평균 외식횟수는 5회 미만이라고 답한 학생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	식생활라이프스타일 6개 요인에 대한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비중이 높았으며, 한 달 평균 외식비지출이 16만 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23명(10.8%)으로 높았다. 또한 한 달 평균 용돈의 규모도 비교적 높은 금액인 31만 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33명(15.5%)으로 높았다. 레스토랑 측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집단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 하고자 했다. 또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라 집단을 분류

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하고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외식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주지역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한 결과 “유행 추구형”, “건강 추구형”, “안전 추구형”, “장식 추구형”, “미각 추구형” 그리고 “웰빙 추구형”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도출된 6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안전 추구형 집단, 소극적 식생활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식생활군집별 특징은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는 여학생이 월등히 높았으며, 소극적 식생활 집단에는 반대로 남학생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외식행동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달 평균 외식비지출은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비교적 높은 금액인 16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23명(10.8%)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용돈의 규모도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비교적 높은 금액인 31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중이 33명(15.5%)으로 높았다. 또한 소극적 식생활 집단은 1학년 학생의 비중(20.7%)이 높았으며,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경우에는 3, 4학년의 비중(12.2%)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외식행동 시의 주요한 목적은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경우는 외식목적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다양한 음식경험을 하기 위해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가 8.0%로 높게 나타나 미식가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소극적 식생활 집단의 경우는 외식의 목적에 단순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라고 답한 학생이 24명(11.3%)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 여학생이 월등히 많았고 유행 추구형 요인과 웰빙 추구형 요인이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된 점 그리고 외식비와 용돈의 규모가 큰 점은 여학생들을 위한 웰빙 메뉴와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레스토랑 인테리어, 분위기 조성 등이 여학생들을 레스토랑에 유인하는 마케팅활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청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외식행동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향후 연구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고재윤, 정미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와인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9권, 제1호, pp.51-67, 2006.
- [2] 김경희, “대학생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 인터넷 패션쇼핑몰 이미지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98-208, 2008.
- [3] 김경희, 이용철, “축제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참가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2권, 제1호, pp.311-326, 2008.
- [4] 김덕희, 백경연, 김소자, “외식 유형별 선택속성에 따른 대구 지역 직장인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II)”, 한국조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40-253, 2007.
- [5] 김미정, 정효선, 윤혜현,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2권, 제2호, pp.210-217, 2007.
- [6] 김석영, 김주영, “진주시내 직장인의 외식이용실태 및 선호도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71-184, 2002.
- [7] 김수정, “외식업체 등급 평가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9권, 제3호, pp.27-49, 2006.
- [8] 김윤민, “특급 호텔 종사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웰빙 소비 행동 차이 분석”, 한국조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293-307, 2007.
- [9] 김지현, 광경숙,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

- 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제16권, 제3호, pp.651-664, 2007.
- [10] 김희선, 정진은, “서울시내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47-157, 2001.
- [11] 남외자, “한일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선택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21권, 제4호, pp.245-265, 2007.
- [12] 박주원, 안숙자, “한국인의 연령, 성별에 따른 외식행동 비교”,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76-295, 2001.
- [13] 설훈구, 이상호, 전재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10권, 제2호, pp.267-284, 2007.
- [14] 승혜숙,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베이커리 제품 이용 행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15] 신재영, 홍석환, “외식소비에 관한 연구: X세대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제2권, 제1호, pp.151-179, 2000.
- [16] 엄문자, 류미현, “외식구매행동에 나타난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5권, 제2호, pp.543-550, 2002.
- [17] 윤혜려, “외식소비자의 연령별 외식행동과 한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연구: 서울, 경기,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0권, 제5호, pp.608-614, 2005.
- [18] 이정자, 윤태환,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외식대안 평가의 차이에 대한 연구: 강원도 영동권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전문점 이용 위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4권, 제4호, pp.1-17, 2005.
- [19] 임영미, 윤혜현,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따른 와인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0권, 제3호, pp.289-300, 2006.
- [20] 임영희, 나명인, “대전시 주부의 외식행동 및 식습관에 대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9, 2008.
- [21]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 양식”, 한국가정학회지, 제28권, 제3호, pp.33-52, 1990.
- [22] 전원배, 박인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호텔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pp.187-200, 2001.
- [23] 정혜경, 김미혜, 우나리아, “충남 지역 일부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76-184, 2007.
- [24] 정효선, 윤혜현,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제10권, 제2호, pp.93-117, 2007.
- [25] 조윤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마케팅 전략”, 전문경영인연구, 제9권, 제1호, pp.21-44, 2006.
- [26] 조진근, 김화동,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보, 제3권, 제1호, pp.35-62, 2001.
- [27] 진양호, “성별에 따른 외식구매행동 비교연구: 20대 초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224-234, 2007..
- [28] <http://www.nso.go.kr>
- [2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1990.
- [30] 한미희, 김경자, “대학생 소비자의 외식가치와 외식행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pp.29-35, 2006.
- [31] H. Assael,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behavior orientation(2nd edition),” Boston: Ket Publishing Company, pp.252-256, 1984.
- [32] M. Buckley, “The convenience consumer and food-related lifestyles in Great Britain,” Journal of Food Products Marketing, Vol.11, No.3, pp.3-25, 2005.
- [33] R. W. Jackson, S. W. McDaniel, and C. P. Rao, “Food shopping and preparation : Psychographic difference of working wives and housewiv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No.1, pp.110-113, 1985.
- [34] W. Lazer,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Ed. by Greysyer, S. A.),"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pp.130-139, 1963.

[35] D. G. Moore,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151-163, 1963.

[36] T. Nobuko and Y. S. Chung, "A comparative study of eating out behavior between Japan and Korea by fuzzy re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27, No.1, pp.40-46, 2003.

[37] M. Reid, E. Li, J. Bruwer, and K. G. Grunert, "Food-related lifestyles in a cross-cultural context: Comparing Australia with Singapore, Britain, France and Denmark," Journal of Food Products Marketing, Vol.7, No.4, pp.57-75, 2001.

[38] I. Ryan, "Food-related lifestyle segments in Ireland with a convenience orient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rketing, Vol.14, No.4, pp.29-47, 2004.

김 연 선(Yoen-Su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8년 2월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8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호텔 · 외식경영, Wine & Beverage

저 자 소 개

손 일 락(Il-Nak Sohn)

정회원



- 1982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1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1년 8월 ~ 현재 : 청주대학교 호텔경영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외식경영, 국제매너